

### 행복한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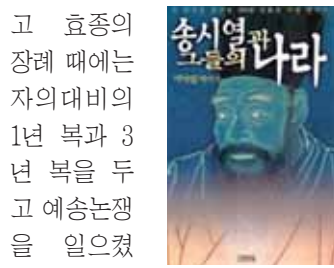
#### 이덕일의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펴)

변화는 커다란 물줄기처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물줄기가 시대를 관통할 때 사회의 격변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격변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때에 따라서 이런 물줄기는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체된 사회는 후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변화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이런 거역할 수 없는 변화를 막아내려는 부류가 있고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보수파라 부른다. 그러나 마땅히 수용해야 할 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스스로 먼저 변화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고 효종의 장례 때에는 자의 대비의 1년 복과 3년 복을 두고 예송논쟁을 일으켰다. 이 예송논쟁은 장장 15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 여파로 남인은 청남과 탁남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이 거듭되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임금은 숙종이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유교의 성리학부터 배웠던 송시열은 결국 남인 소생의 왕자가 원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려다 숙종임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 '광주폴리 프로젝트' 세계적 건축가 렘 쿨하스 참여

#### 참여작가 8개팀 확정... 데이비드 아자예·아이웨이웨이 등

#### '인권과 공공공간' 주제... 17~18일 워크숍 세부계획 논의

'중국판 피사의 사탑', '큰 바지 건물'이라는 별칭으로 지난 200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적의 건축물'로 뽑힌 기둥을 얹고 중앙에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로 설계돼 '공중에 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서울대 미술관의 '파격'을 잇는 다음 작품은 뭐가 될까?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추진하는 '광주폴리(Folly) 프로젝트'에 중국 베이징 CCTV 신청사, 서울대 미술관을 설계한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참여작가로 확정됐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태생의 가나 건축가로 현재 영국건축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데이비드 아자예(David Adjaye)도 참여작가로 뽑혀 광주를 찾는다.

렘 쿨하스의 경우 독일 작가 인고 니어만, 데이비드 아자예는 미국 작

가인 타이에 셀라시와 각각 협업으로 작품을 내놓게 된다. 데이비드 아자예는 올해 초 폴리 프로젝트 총감독에 거론됐던 인물로,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와 영국 아이디어 스토어 등을 건축했다.

락스 미디어 컬렉티브는 인도 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작가 지베쉬 바그치, 모니카 나루라, 슈드라 브라타 센굽타로 이루어진 작가 그룹이다. 이들은 사진, 뉴미디어 영상, 미디어아, 리서치 등을 병행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광주지하철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재단은 지난해와 달리 건축가 뿐 아니라 예술가들도 폴리 작가로 참여하고 있고 건축가들도 예술가와 공동 작업을 펼칠 예정이어서 '인문학과 건축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오는 17일부터 니콜라우스 허쉬 총감독과 함께 이틀간 워크숍을 열고 폴리 설치 후보지를 둘러본 뒤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 등 세부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폴리(Folly)는 광주 도심에



렘 쿨하스 설계 중국 베이징 'CCTV 신청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공 조형물을 조성, 문화 자산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돼 11개가 설치돼 있다.

한편, 비엔날레재단은 최근 '광주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광주역 ▲광주천 ▲금남 지하상가 ▲광주공원 ▲조선대 앞 푸른길공원 ▲광주지하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인광장 등을 폴리 설치에 적합한 장소로 결정할 바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공 조형물을 조성, 문화 자산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돼 11개가 설치돼 있다. 한편, 비엔날레재단은 최근 '광주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광주역 ▲광주천 ▲금남 지하상가 ▲광주공원 ▲조선대 앞 푸른길공원 ▲광주지하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인광장 등을 폴리 설치에 적합한 장소로 결정할 바이다.

광주 폴리(Folly)는 광주 도심에

/김미은기자 dok2000@kwangju.co.kr

### 사대부를 위한 나라 백성은 없다

는 한 가지뿐이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고한 적이 있다.

조선의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는 말 그대로 격변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정권이 뒤바뀌는 환국(換局)이 거듭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상업농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상공업과 국제 무역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는 화폐 경제의 발달을 낳았고 사회경제의 필요에 따라 속종 4년에 상평통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송시열과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주자학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대를 역행해 나갔다. 주자학은 송시열이 평생을 걸쳐 연구하고 신봉한 학문으로 송시열은 주자가 주인이 되는 주자의 나라를 만드는데 오직 관심이 있었다. 그런 송시열이 엮기에 효종의 북벌 정책에 말로만 풍조하는 척 했

하지만 그는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재집권하자 문묘에 종사되고 송자라는 성현으로 불리어졌다. 왜란과 호란으로 임금과 사대부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사대부들을 위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주자학을 정치에 접목시켰던 송시열에 대한 호칭이 이처럼 화려했던 것이다.

저자는 말미에서 이 호칭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사회변화를 실현시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니라 사대부와 노론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공허함은 이 시대에도 도처에 널려있다. 말로는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밤낮없이 일하는 임신부들의 증가도 그렇고 여성고용에 대해 부정적 기입이 많다는 것도 그렇다.

이것은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아이의 탄생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을 다시 되새겨 본다.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락스 미디어 컬렉티브



데이비드 아자예



슈퍼 플렉스

### 15~18일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더 레이디'

#### 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제3회 광주여성영화제가 15일~18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그거 기억하니'라는 주제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 스펙트럼은 어떤 영화제 보다 다양하다. 말랑말랑한 대중영화도 있고,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독립영화들도 있다.

개막작은 릭 백송 감독의 '더 레이디'(사진).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군부독재와 맞서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모성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틸다 스유펙 주연의 '케빈에 대하여', 일본

영화 '해피피피 브레드', 엄정화 주연의 '덴싱퀸', 변영주 감독의 '화차' 등은 극장 개봉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이다.

폐막작(18일 오후 4시)은 김화순의 '오월을 걷는 여자', 김경심의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정우영의 '명심 언니의 집으로 가는 길' 등 지역 감독들이 만든 다큐 세편이다.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면놀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미쓰 마미' '왕자가 된 소녀들', '청포도 사랑:17년전의 약속', '은실이' 등은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상영작 소개는 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cafe.daum.net/wf-



fig)를 참고하면 된다. 엄마 관객들을 위해 놀이방이 마련됐으며 커피도 제공한다. 관람료는 좋은만큼 후불제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문의 062-430-6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과거시험 보러 갑니다"

#### 17일 전문문화관 '과거 시험'... 초·중 지원자 모집

2009년 과거 시험 현장이 재현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나도 과거 시험 도전!' 행사가 17일 오후 1시부터 무등산 자락 전문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1579년 명양정 송순 선생의 과거 급제 60년을 맞아 제자들이 명양정에서 축하행사를 연 '송순 회향연'과 광주목과 과거 시험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송순의 문집 '면앙집' 연보에 전해지는 기록을 바탕으로 김희

태 전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토와 해석을 하고, 장상은 작가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송순 회향연은 푸른연극마을 단원들이 재현하며 초중학생 100여명이 유생 복장을 하고 과거 시험 절차를 그대로 재현한 뒤 '무등산과 자란'을 주제로 백일장을 치르게 되며 시상식도 갖는다.

참가를 원하는 초중학생(4~6년)과 중학생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http://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효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